

'고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

장수군, 아열대 향신채소로 지역 적합 우수계통 선발·연중 생산 가능 작부체계 확립

장수군이 돈 버는 농업, 농촌 실현을 위해 아열대 향신채소인 '고수'를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한다.

군에 따르면 군에서는 기존 특화작목의 확대뿐 아니라 새롭게 부각되는 작목에 대해 우리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육성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수군이 아열대 향신채소인 '고수'를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한다.

특히 2020년부터 2년간 전북도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중간간지에 맞는 고수 우수 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 확립 연구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연구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고수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수 지역에서는 텃밭 채소로 잘 알려져 있는 고수는 지중해 동부연안이 원산지로서 주로 향료, 쌈채로 이용되고 있으며 비타민 함량 등의 기능성 성분이 높다.

최근 젊은층의 외국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외국 여행의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고수 소비량이 급증해 연중 유통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고수는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이 없어 도 농업기술원이 수집한 계

통 중 지난해부터 우리지역에 적합한 우수계통 4종을 선발했으며 한해 6기 작 생산으로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부체계를 확립했다.

군에서는 금년 시범농가 3곳을 육성했으며 농협과 직거래를 통해 평당 6만 5천원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했다. 특히 고수는 쌈채소에 비해 투입 노동

력이 거의 없어 고령화된 지역에서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에 적합하다.

장영수 군수는 "새로운 소득작목의 지속적인 발굴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돈버는 농업·농촌, 풍요로운 미래의 땅 합한 장수건설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국산목재 유통구조 활성화 협력

무주국유림관리소, 지역목재산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1일, 무주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남원산림조합, 한국목조건축협동조합, (주)가온우드, 트리스쿨(주), 영동오크통제작소, (사)한국목조건축협회와 지역 목재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의 국산목재를 다양한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공유·협력함으로써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식에는 이명규 무주국유림관리소장, 운영창 남원산림조합장, 최규용 한국목조건축협동조합 이사장, 김영운 (주)가온우드 부사장, 김승범 트리스쿨(주) 대표, 영동오크통제작소 대표 정충호, (사)한국목조건축협회 구자일 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호남지역 국산목재 원자재·중간재 공급 협력, ▲국산목재 건축 내·외장재·구조재, 목공제품교구, 오크통 소재 공급, ▲국산목재를 이용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목재 제품 개발 협력, ▲국산목재의 생산·유통 정보 공유,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국산목재 제품 건축 시공 및 목조건축 기술 개발 협력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기관은 무주국유림관리소(국산목재생산), 남원산림조합(재제·건조), 한국목조건축협동조합(목조건축 구조재 생산), (주)가온우드(건축내·외장재 생산), (주)트리스쿨(목공 키트 개발), 영동오크통제작소(국산 오크통 생산), (사)한국목조건축협회(목조건축 시공) 등 지역 국산목재 생산자·유통자 간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잘 가꾸은 산림자원을 지역목재 고부가가치 목재 자원으로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고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명규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지역목재 산업체와 협력으로 지역 목재 유통 체계 기틀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목재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대한민국 치유관광 1번지 위한 다양한 전략 제시

진안군은 2일 '진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춘성 군수를 비롯해 군 실과소, 읍면장 등이 참석해 진안군 관광현황 종합분석, 핵심가치 도출, 관광개발 및 관광진흥 기본구상과 세부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석자 간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용역 수행기관인 (재)한국자치경제연

구원(책임연구원 오창현)은 고원지대인 군의 특징과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치유관광 1번지, 진안군 내만의 힐링 케렌시아'를 비전으로 진안고원형 치유관광 상품 개발과 감성관광 명소 개발, 급변하는 관광환경 대응을 위한 관광체계 혁신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 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기존 주요 관광권역이었던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용담호, 운장산·구

봉산, 백운동계곡의 5개 권역 이외에 부귀메타세쿼이아길, 섬진강·풍혈빙천, 천반산·죽도의 신규 소권역 거점 육성방안을 제시하여 균형 있는 관광개발과 기존 관광권역 연계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군은 도출된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용역을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진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진안군 관광 활성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진안군은 축산 악취발생에 대한 대처와 함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악취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관리에 나선다.

군은 '악취방지법'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 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를 통해 악취 지속여부에 따라 고발과 조

업정지 처분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악취 중점관리시설 8개소(축사 5, 퇴비공장 3)를 지정하고 동시에 3억여원을 들여 원격으로 포집이 가능한 무인악취포집장비 11대를 설치해 운영했다.

그 결과 90여차례 악취 포집을 추진했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초과한 사업장 2개소를 적발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 중 1개소(퇴비공장)는 지난 10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여 시설 개선을 진행했으며, 다른 1개소(축사) 사업장 역시 12월 중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현재 해당 사업장은 시설 개선 중에 있다.

악취방지법에 따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무주군은 2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대상 농가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기존 쌀직불·밭고정 등 기존 6개 직불제를 개편·통합해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5,367명을 대상으로 80억 7,700만 원을 지급했다.

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0.5ha 이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게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소농직불금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3단계로 구분해 구간별 100~205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농지의 형상·가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조건에 따라 10~2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제13기 반딧불 농업대학 졸업식 가저

무주군은 2일 농업기술센터 농민의 집 농민마당에서 제13기 반딧불 농업대학 졸업식을 가졌다. 무주군의 반딧불 농업대학은 농업전문가를 양성하고 농가소득에 일조한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에 의거해 1백 명 이내로 참석인원을 제한했으며, 학사보고에 이어 공로패 및 상장 수여, 졸업장 수여, 격려사, 수료 소감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포도와 최주영 씨가 반딧불 농업대학 발전과 제13기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또 사과과 최민철 씨와 포도과 이승

운 씨가 학과운영에 성실하게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반딧불농업대학장 공로상을 받았으며, 사과과 조운용·장영수 씨도 100시간 이상 교육이수자에게 주는 반딧불농업대학장 우수상을 수상했다.

무주 반딧불농업대학 황인홍 학장(무주군수)은 "농업대학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해 졸업의 영광을 얻게 된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대학에서 터득한 기술과 이론을 토대로 농업발전에 주역이 돼 달라"며 "내년에는 농업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잘사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3800농가 가입

장수군은 태풍, 호우, 서리 같은 자연재해나 조수해, 병해충 피해, 화재에 의한 농업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올해 군내 3,800농가가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수는 지난 해 3,500농가보다 9% 증가했으며, 올해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682농가가 총 43억 원의 보험금을 지원 받았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은 당초 국비 50%, 도비 15%, 군비 15%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가는 20%를 부담하나 장수군의 경우 농가부담금과 가입농가 확대를 위해 농가부담금을 5%까지 낮췄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과수,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벼, 고추 등 6개 품목으로,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라면 가까운 농·축협 등을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보건소, 한의약대사 증후군 관리교실 수료식 개최

진안군 보건소(소장 이임옥)는 '한의약 대사증후군 관리교실' 참여자 20명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개최했다.

최종검진 결과를 통해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하는 등 뜨거운 인기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한의약 대사증후군 관리교실'은 혈압, 당뇨 등 사전 검사를 통해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0주에 걸쳐 운영됐다.

한의학적 접근법을 통한 대사증후군의 이해, 비만체형교정 요가, 건강검진 방법,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마음치유 등 건강이식을 개선하고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매주 실시해 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고혈압·당뇨병교육센터와 연계하여 개인별로 맞춤형 영양도시각을, 대사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매주 제공하여 체중감량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이 75%를 차지해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함을 보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